

## ‘두쫀쿠’가 뭐길래… 제주서도 웨이팅 열풍

SNS 통해 입소문 타 맛집·오픈시간 등 공유  
추운 날씨에도 긴 줄… 일반음식점까지 가세  
“재료값 올라 힘들어”vs “손님 유입효과 톡톡”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열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카페 오픈 시간에 맞춰 두쫀쿠 구매를 위해 수십 명이 대기하는 풍경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반음식점들도 메인메뉴와 함께 두쫀쿠를 판매하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13일 오전 9시 40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카페 앞,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가 1°C까지 떨어진 날씨에도 카페 앞은 두쫀쿠 구매를 위해 ‘오픈런’하는 시민들로 긴 줄이 생겼다. 카페 영업시간인 10시가 되자 대기인원은 50명까지 늘어났다.

이곳에서 만난 박모(45·한림읍 협재리)씨는 “아라동에 올 때마다

카페에 줄이 너무 길길래 검색해 보니 두쫀쿠를 판다고 해서 왔었다”며 “날이 춥긴 해도 요새 너무 유명해서 자녀와 함께 먹어보려고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두쫀쿠’ 유행이 여전히 뜨겁다. 두쫀쿠란 두바이 초콜릿과 쫀득 쿠키를 합친 디저트를 말한다. 가격은 1개당 4500~7000원가량에 판매된다. 중불에 녹인 마시멜로우로 얇은 피를 만들어 카다이프(중동의 얇은 국수)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섞은 속재료를 넣고 동그란 떡 모양을 만든 뒤 카카오가루를 뿌리면 완성된다.

두쫀쿠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자 제주 등 전국의 카페들은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 양유리기자

나오는 시간’을 따로 공지하고, 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면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또 소비자 유입을 위해 일반음식점들까지 두쫀쿠 판매에 가세했다. 실제로 제주에서도 국밥, 장어, 피자, 치킨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두쫀쿠를 판매하며 매출 증대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높아가는 수요에 재료값

이 크게 뛰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제주시 연동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윤모(30대)씨는 재료값 부담에 최근 두쫀쿠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윤씨는 “재료값은 매번 오르는 데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제품이라서 아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라며 “피스타치오는 1.5배 이상, 마시멜로우는 2~3배 정도 올랐다”고 토로했다.

반면 두쫀쿠로 유입된 손님들이 다른 제품도 구매하며 수익이 늘었다는 점주들도 있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용모(20대)씨는 “손님들이 두쫀쿠를 사려 온 김에 다른 메뉴들도 구매하면서 매장 이름 알리기에도 좋고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며 “재료값은 일주일마다 매번 오르는데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어서 카다이프나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는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노인복지 증진 사업 공모  
도, 오는 21일까지 9개 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1억6000만원 규모의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노인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평생교육·운영 ▶문화·예술 활동 ▶경로당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육성 지도 ▶충효·애절 등 전통 문화 선양 ▶노인 인식 개선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1000만원(자부담 10% 포함)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공모 관련 내용은 제주도정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노인복지과(전화 710-2828)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통합복지기금을 활용해 30개 사업에 1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꽃망울 터뜨린 개나리 예년 기온을 되찾은 13일 제주시 오라동 도로변에서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려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 이어질 듯

당분간 제주에는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들이 이어지겠다.

1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는 14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다. 15일도 대체로 흐리

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겠다.

다만 14일 일교차가 10°C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건강관리에 유의 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4°C (평년 2~4°C), 낮최고기온은 14~15

°C (평년 8~11°C)로 예상된다. 이어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3°C (평년 2~4°C), 낮 최고기온은 16~18°C (평년 8~11°C)로 비교적 온화한 기온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새벽~오전 시간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산간도로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백금탁기자

‘설비보전 산업 기사’ 과정평가형 훈련기관 선정  
서귀포산과고 스마트에너지설비과 신입생 대상 운영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전문 대졸 수준의 국가기술자격인 ‘산업 기사’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귀포산과고는 본교 스마트에너지설비과가 고용노동부와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설비보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 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서귀포산과고는 2026학년도 스마트에너지설비과 신입생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약 2년간 능력표준(NCS) 기반의 ‘설비보전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산과고 학생들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이 요구되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교육 과정은 총 520시간으로 편성돼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주 교육 내용은 수동·반자동 가스 절단, 피복아크용접 필릿용접 및 결합부 보수, 기계부품조립, 공기 압·유압 장치조립, 전기전자장치조립, 조립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서귀포산과고는 지난해 10월 추진된 ‘에너지 분야 제주형 협약 고등학교’ 사업과 연계해 향후 5년간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총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최신 실습 기자재 도입과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초등 입학생 5000명선 봉괴… 학령인구 급감

교육부, 초·중·고 학생 수 보정 추계 결과 공개

제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4717명 추산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가 이

어지면서 2026년 제주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50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보정 추계 결과 (2026~2031년)’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4717명으로 추산됐다.

이번 추계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와 국가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토대로 학생 수를 산출한 결과다.

교육부는 제주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027년 4382명, 2028년 3972명, 2029년 3860명, 2030년 3618명, 2031년 3495명까지 줄어드는 등 향후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수 전반의 감소세도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역 초등학생 수는 2025년 3만6244명에서 2026년 3만4202명으로 줄어든 뒤, 2027년 3만1865명, 2028년 2만9242명, 2029년 2만6946명, 2030년 2만5063명, 2031년 2만355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수 축 상  
CONGRATULATIONS

산업포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

한국농어촌공시장상

자체제주농촌문화상(농업부문)



김권호



임병언



정옥춘



강철민



송철주



강상범



부재일

새농민상 본상



표선(송동혁·차순일)



제주고산(이연화·강정식)



중문(김태형·강봉숙)



구좌(송철주·오복민)



애월(강경운·현정자)



성산일출봉(신태범·송영숙)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새농민  
법인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김종우·제주시회 회장 강명조·서귀포시회 회장 오토홍부 외 회원일동